

할부금/약정기간 남아있는데 휴대폰 바꿨다, 56%

- 통신사의 과열 경쟁 때문

휴대폰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'할부금/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'에서 휴대폰을 바꾸며,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'최신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'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

휴대폰 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(대표 김진국)가 지난 6개월간 휴대폰을 구입한 20,794명에게 묻은 결과, 전체의 56%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 및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[그림1]. 이는 LTE 등 최신 기능을 갖춘 단말기의 보급과 맞물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열 마케팅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.

할부금/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는 비율은 단순히 단말기를 바꾸는 경우 보다는 단말기 교체와 함께 통신사를 전환 가입한 경우에 더 높았다.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. 이 비율은 SKT에서 LG U+로, 반대로 LG U+에서 SKT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에 63%로 더욱 높게 나타나 LTE 가입자를 둘러싼 두 통신사 간의 경쟁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. 지나치게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며 단말기의 조기 교체를 유도하는 통신사들의 과열 마케팅은 결국 고가의 요금제 등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.

휴대폰 교체 이유로는 39%가 '최신 휴대폰을 갖고 싶어서'라고 답했다. 반면,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능 및 품질에 불만이 있어서 교체했다는 응답은 29%였으며,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고장·파손 때문이라는 응답은 24%에 불과했다[그림2]. 이는 휴대폰 교체의 대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기 보다는 통신사의 부추김에 따른 것임을 보여준다.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소비생활의 정착을 위해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과잉 경쟁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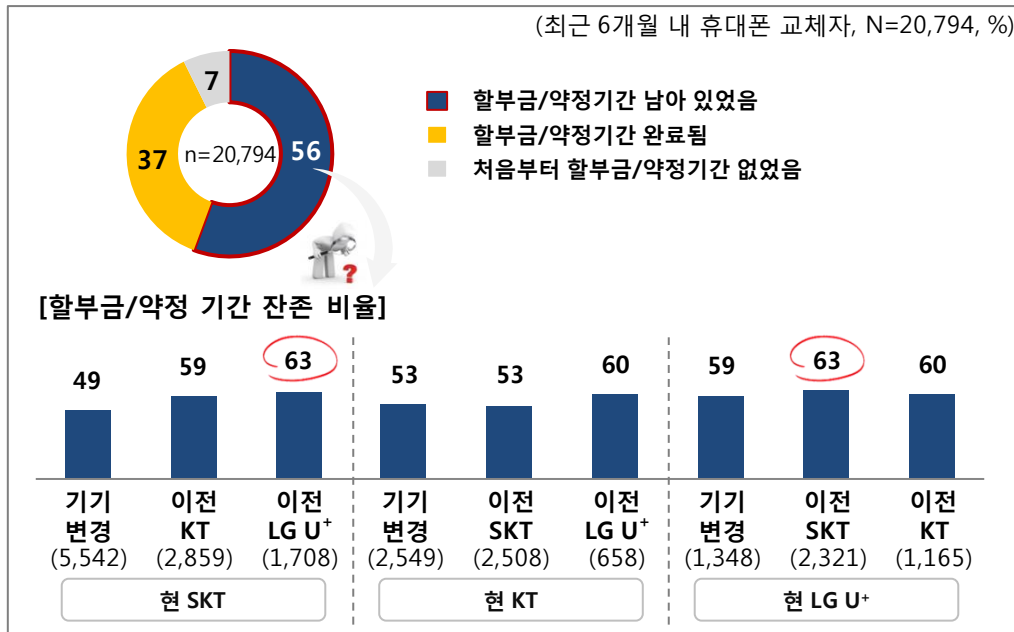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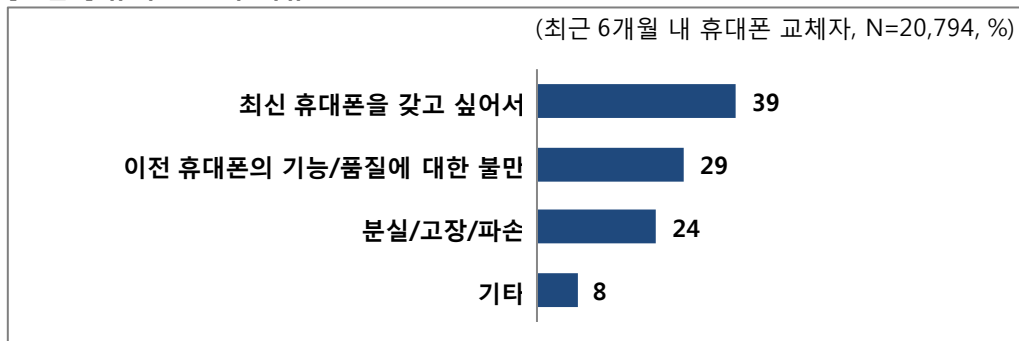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

[첨부]=====

[그림1] 휴대폰 교체 시 할부금/약정기간 잔존 여부



[그림2] 휴대폰 교체 이유

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

[제 16차 이동통신 기획조사 개요]

- 조사명: 2012 하반기 이동통신 기획조사
- 조사기관: (주)마케팅인사이트(www.mktinsight.co.kr)
- 조사대상: 14 ~ 64세 휴대폰 보유자
- 조사내용: -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기 구매/사용행동, 만족도, 브랜드 선호도 등
 - 통화/제품 품질 평가 (경험품질)
- 조사기간: 2012년 9월 13일 ~ 10월 10일
- 조사방법: 온라인 우편조사(e-mail survey)
- 표본규모: 총 응답자 73,365명

위 조사 결과는 휴대폰 전문 조사업체 (주)마케팅인사이트(대표: 김진국)에서 2012년 9월 실시한 '16차 이동통신 기획조사'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. 이 조사는 매년 2회 상/하반기로 나누어 4월과 9월에 실시되며, 매회 10만여명의 이동통신 소비자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이동통신 전문 기획조사입니다.

Copyright © Marketing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상업적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For more Information

문의: 박경희 부장 Tel. 02) 6004-7619, Fax 02) 543-5984 e-mail: parkkh@mktinsight.co.kr

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6-3 히아빌딩 4F Marketing Insight Inc. www.mktinsight.co.kr, www.panelinsight.co.kr